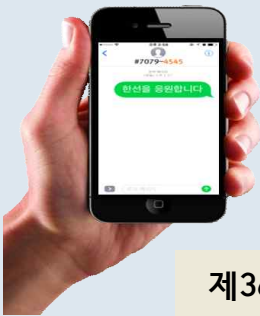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 보선결과 평가
[발제자]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일 시] 2021년 4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63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대선 전초적 격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했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의 압도적 승리를 한 지 불과 1년 만에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론으로 유권자의 위력을 보여준 점이 핵심이다. 한편 중도를 표방한 안철수 후보와 개혁적 보수를 말한 오세훈 후보가 결합하면서 중도 보수층의 선거 연합이 선

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한 여당의 전략적 실패도 한몫했다.

-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당은 현재 패닉 상태지만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양자 대결 구도가 되면 여야 득표 차가 크지 않은 박빙 선거가 될 것이다. 야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우쭐대지 말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 선거와 정치는 과학이다.

- ◆ 대선 전초전 격인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지 불과 1년 만에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유권자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가. 정권심판론

- ◆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태가 겹치면서 정권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정권심판론에 보이지 않는 불을 당겼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야권후보 단일화 효과

- ◆ 가장 대표적인 후보 단일화 모델은 97년도에 있었던 DJP연합이다. 97년, DJ와 JP가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해 연합했다. 이 연합의 특징은 이질적 세력의 결합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 또한 중도를 표방했던 안철수 후보와 개혁적 보수를 주장했던 오세훈 후보가 결합하면서 중도 보수층의 선거 연합이 만들어졌다. 여권도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는 어떤 이질적인 세력의 결합이 아닌 그들끼리의 후보 단일화였기 때문이다.

다. 여당 전략의 대실패

- ◆ 여당은 후보의 정책 비전에 대한 홍보보다도 생태탕, 폐라가모, 엘시티 같은 네거티브에 집중했다. 여당의 전략적 실패이다. 코끼리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코끼리만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야당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 할수록 LH비리가 더욱 연상될 뿐이었다.

◆ 이번 선거결과의 정치적 함의

- ◆ 첫 번째는 정당 재편성의 관점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성향이 이슈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시대 변화에 부응한 리더가 부상하면 정당이 재편된다. 정당재편성론의 논리에서 볼 때 정당이 재편되면 오랜 기간 지속된다. 이 논리는 향후 정당재편 시에 음미해볼 대목이다. 2020 총선까지 민주당의 연속 승리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우위 즉 진보 우위의 정당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진단을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예상이 뒤집어졌다.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여당을 지지한 20대가 이번엔 압도적으로 야당을 지지했다. 2030세대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들은 앞으로도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의미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스윙 보트(swing vote)’인 것이다. 2030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음 대선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 ◆ 두 번째 관점은 대한민국의 대선과 관련한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이다. 1988년부터 노태우, 김영삼 10년이 보수정권이였다. 98년부터 2008년까지가 김대중 노무현 시절이었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보수정권이였다. 2017년 5월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이후 권력교체 10년 주기설에 의하면 2022년도 진보세력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지난해 총선까지만 해도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고 예상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한국정치에서 불변의 법칙으로 작동했던 권력교체 10년 주기설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 ◆ 마지막으로 선거는 연대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는 단순히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끝까지 선거활동을 함께 했다는 데 있다. 2002년도 8월 8일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3곳 중 11곳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겼다. 그러나 2002년의 대통령 선거는 노무현 후보가 이겼다. 재보궐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일하다. 이번 패배가 여당에게는 약이 될 수 있다.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불과 1년 만에 민심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앞으로 어떤 연합을 만들어야 보수가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잘 설득해야 또 다른 선거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대권을 향한 여야의 행보

- ◆ 여야 공히 네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가. 2021 대권을 향한 여권의 행보

1. 친문중심의 정권 교체
2. 야권일부와 연합한 개헌 추진
3.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여권 분열
4. 여야 모두가 분열되는 다자필승론

나. 2021 대권을 향한 야권의 행보

1.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결집
2. '국민의힘'과 제3지대의 분리
3. 분리된 세력이 '국민의힘' 일부를 끌어들이면서 제3지대가 제1당을 흡수
4. 야권의 분열

- ◆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공동체자유주의'라는 큰 가치 속에서 야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가치를 통해 연대를 할 경우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공동체자유주의'를 통한 야권의 통합은 선거승리연합을 위한 제3의 길이다. 자유주의를 얘기하지만 공동체정신을 중요시하는 진보의 가치도 '공동체자유주의'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이다.
- ◆ 선거연합을 이룬 야권이 승리하려면 특정 인물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된다.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실험을 하는 세력이 이긴다. 드림팀을 만들어서 싸워야 한다. 모든 세력이 합쳐질 빅텐트가 필요하다. 함께 모여 연대하면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당은 현재 패닉 상태지만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양자대결구도가 되면 여야 득표 차가 크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우쭐대지 말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